

A Study on the Necessity of Library Education as a Required Subject in University Curriculum

大學教育 改革과 圖書館教育의 意義

—圖書館教育 大學教養課程化의 必要性에 관한 研究—

羅 成 實

崇義女專圖書館學科教授

編輯者 註: 本論文은 1972年度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의 要約으로서 第4章「大學教育改革의 胎動과 圖書館教育」을 添削修正한 것이다.

I. 緒 論

1. 研究의 目的

오늘날 教育이 當面한 여러가지 문제중에서 注目할 만한 事實中의 하나는 教育의 內容이 되는 知識의 加速의 增加다. 美國의 N.E.A. (National Educations Association)의 報告에 의하면 知識의 倍加現象이 西紀元年을 基準으로하여 一次倍가가 1750年, 二次倍가가 1900年에, 三次倍가가 1950年에, 그리고 不過10年을 넘기지 않은 1960年에 다시 倍加現象이 나타났다는 推算이다.¹⁾

이렇게 幾何級數의 增加하는 知識內容에 對應하여 教育이 어떻게 그 所任을 다하느냐하는 것이 重大한 問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韓國의 教育 特別히 大學教育은 아직도 傳統的 講義方式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筆者는 이러한 知識의 加速의 增加에 對備하는 方法으로서 圖書館教育을 大學教育課程으로 實施하여 自律學習이 可能케 함으로써 平生教育²⁾이 要求되는 變化하는 社會와 學術의 發展에 對應하고 能動的으로 寄與할 수 있다는 主張을 나타내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方法

이와 같은 主張을 立證하기 위하여 韓國 大學教育의

目的과 教養教育, 教養教育과 圖書館教育의 聯關의 意義를 밝히고, 圖書館教育의 大學教養課程化의 必要性을 主張한 先行研究(主張)들을 中心으로 이를 要約表現하고, 덧붙여서 現在 各大學이 實施하는 圖書館教育의 한 方法인 『圖書館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얼마만큼의 效果가 있는가를 設問을 통하여 調査함으로써 새로운 圖書館教育方法이 必要하다는 것을 客觀的으로 立證하려 하였다.

3. 研究의 制限點

圖書館教育의 概念, 目的, 內容, 方法에 관한 國內 研究가 없고, 따라서 그 結果의 評價·測定에 관한 先行研究 結果가 없어서 實態調査의 問項設定에 있어서 筆者의 主觀的 常識에 의한 點과 外國의 資料를 入受하지 못하여 外國의 圖書館教育實態를 比較하지 못한 것이 크게 유감이다.

II. 大學教育에 있어서 教養教育과 圖書館教育의 意義

1. 大學教育의 目的

大學 및 大學教育의 目的에 대해서는 時代的 地域的 特殊性에 따라 各種理論이 있을 수 있고, 實際로 많은 論文들이 發表되었다.³⁾ 그러나 本論文은 이러한 目的論을 研究하는 것이 아니고, 大學教育에서의 教養教育과 圖書館教育의 聯關의 意義를 밝히기 위한 것임으로 一般的인 大學教育의 目的論에 立脚하여 論述하고자 한다.

韓國의 大學教育目的은 『國家와 人類社會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 研究하는 同時에 協同精神이 豐富한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이다.⁴⁾ 即, 學術理論과 그 應用方法의 教育·研究와 指導의 人格의 養成에 있다.

註 1) 廣岡亮藏 編者, 發見學習. 東京, 明治圖書, 1968 pp.9~10 再引用.

2) 鄭在哲, “高度知識社會와 平生教育” 中央大學校社會開發大學院, 社會開發論叢 1971 pp. 21~31에 의하면 「生涯教育」이라고 한다.

註 3) 韓國教育目錄[1945~1971]. 서울, 中央大學校出版局, 1960~1972, 1-4冊에 依하면 總 418項目이나 된다.

4) 大韓民國教育法 第108條.

다만 學問만 研究하고 教授하는 것이 아니라 職業的 知識(技術)의 專門教育機關이며,⁵⁾ 學問하는 方法을 가르치는 곳⁶⁾ 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國家社會에 奉仕할 줄 아는 指導의 人格을 重要視함으로써 單純한 知識의 傳授나 專門技術者 養成소가 아님을 分明히 하고 있다. 이러한 人格은 道德의 主體로서의 人格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個人의 知·情·意 및 肉體의 側面을 總括하는 全體의인 知慧人을 意味한다.⁷⁾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人格은 一般的으로 말하는 教養과 相應되는 面이 많을 뿐만 아니라 人格이나 教養은 知的 士薈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要約해서 大學教育의 目的은 學術 및 그 應用方法의 教授·研究의 專門的인 面과 이러한 知的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國家社會에 奉仕할 수 있는 教養的인 兩面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教養教育의 意義

教養教育은 前述한 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專門教育에 對應되는 一般教育(General Education)과 人文·自由教育(Liberal Education)의 뜻이 함께 있어 一般教養教育이라는 말로 通用되고 있으나 兩者는 事實上 거의 같은 性質의 뜻으로 使用되고 있다.⁸⁾

勿論 人文·自由教育의 目標은 知識의 統合體 보다는 統合된 人格을 키우는데 重點이 있는데 反하여 一般教育은 知識의 膨脹으로 인하여 專門領域이 극히 限定되지 않을 수 없게 된 分野에서 專門教育과 區別하기 위하여 使用되고 있다.⁹⁾

韓國에서 一般教養科目이라고 하면 『一般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데 必要한 科目』으로 간단하게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一般指導의 人格이 具體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解釋이 있을 수 있는데 中央教育研究所가 試案으로 提示한 教養教育課程의 一般目標은 「고등교육을 받은 시민으로서의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자질인 인간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기본적 이해, 명확한언어능력, 합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건전한 가치관, 한국인으로서의 자각과 세계인으로서의 시야, 세련된 심미감, 부단한 자기개선 및 민주적 지도성을 배양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¹⁰⁾

이다.

教養教育의 役割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 社會에서 指導的인 役割을 담당할 知識人으로서의 폭넓은 知識과 教養을 提供하고 둘째, 精神的인 諸價値에 대한 날카로운 意識과 感受性을 갖춘 人格을 陶冶케 하여 세계, 專門教育에 對備하여 外國語 其他의 基礎教育을 實施하는 것¹¹⁾』이라고 發表한 경우도 있는데 內容은 事實上 大同小異하나 表現이 다를 뿐이다. 即 教養教育의 目的은 教養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共通되는 知識, 能力, 價値觀等의 人格陶冶面과 專門教育에의 對備教育——基礎教育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換言하면 教養教育은 專門教育의 바탕이며, 人間의 一生을 통한 教養形成 곧 人格形成을 위한 教育임으로 大學에서의 教養教育은 自律的인 生活과 自發的인 學習을 위한 教育과 民主市民教育을 위한 基本的인 教育으로서의 役割을 하는데 그 意義가 있다.¹²⁾

3. 圖書館教育의 意義

圖書館教育이라 함은 圖書館(文獻資料)을 媒介로 한 教育과 圖書館에 관한 教育의 두 가지 意味가 있다. 前者는 圖書館의 機能을 利用한 學習指導, 生活指導, 讀書指導를 말하고 後者는 圖書館 및 資料利用指導의 意味가 있다.¹³⁾ 여기에서 注目할 점은 圖書資料의 概念이 점차 擴大되어 간다는 것이다. 即 現代圖書館 및 情報센터가 취급하는 資料는 冊子資料와 非冊子資料——視聽覺資料를 包含하는 人類의 知的 表現物 全體라는 것이다.

따라서 圖書館教育은 學術理論의 根據가 되는 모든 知的 資料의 利用法을 가르치는 것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는 情報科學의 資料蒐集方法, 文獻調查法, 資料의 組織 即 論文作成法에 이르는 學術研究方法의 教育인 동시에 應用方法의 教育인 것이다. 換言하면 各分野의 學術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나, 自己改善의 教養을 習得하는데 있어서 그 研究와 習得期間을 短縮할 수 있도록 모든 資料를 效果의으로 探索하고 體系의으로 組織하여 活用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는 것이다.

知識의 爆發의 增加는 勿論 날로 細分化되어가고 있는 現代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自律的 學習方法만큼 좋은 方法이 發見되지 않고 있으며 自律學習은 곧 平生

註 5) 張乙柄, “大學人의 現實參與” 成均館大學校, 成均 24 : 1970 p. 43.

6) 朴成壽, “大學의 現實과 貧困” 同上書 p. 58.

7) 劉基天, “教養課程의 必要性” 서울大學校, 大學新聞 1960. 4. 4 p. 4.

8) 金致遠, “教養教育의 役割” 高麗大學校, 教養 5 : 1968 p. 140.

9) 世界教育概觀Ⅲ 高等教育篇, UNESCO, 1966p. 50.

註 10) 中央教育研究所, 大學教育에 관한 綜合的 研究, 서울, 同研究所, 1967 pp. 100—101.

11) 金致遠, 前掲論文 p. 142.

12) 中央教育研究所, 大學에서의 民主市民教育, 서울, 同研究所, 1964 p. 57.

13) 이규범, “학습지도 개선을 위한 도서 및 도서관이용지도에 관한 연구” 釜山教育大學, 研究報告 6, 1 : 1970 p. 17.

自己教育이 가능한 永久學習의 基礎¹⁴⁾가 되는 것이다. 이 點에 대해서는 實驗大學과 聯關해서 다음 章에 詳論하였다.

要約해서 圖書館教育은 스스로 教養을 쌓도록 圖書館資料를 自律的으로 利用할 수 있게하는 教育이며, 學術 및 教養의 基礎가 되는 文化遺産에의 效果의 接近方法의 教育이며, 날로 增加하는 知識情報에 대한 體系的의 接近方法의 教育인 同時에 그 活用方法의 教育이다.

4. 教養教育과 圖書館教育의 聯關의 意義

以上에서 大學教育의 目的과 聯關해서 教養教育과 圖書館教育의 意義를 각각 간단히 살펴 보았다.

前述한 바와 같이 教養教育은 大學教育目的의 重要한 部分으로서 人格陶冶에 그 目的이 있고 그 人格은 一般的으로 말하는 教養으로서 民主市民教育이며, 專門教育에 對備하는 基礎教育이다. 即, 보다 높은 次元에의 繼續的인 自己發展의 教養, 그 時代가 要求하는 指導의 人格者를 만들기 위한 教育으로서 그 指導의 人格은 一般的教養과 專門的知識의 바탕위에 可能하기 때문에 教養教育은 專門教育과 對應해서 부르는 하나 對立의 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고 大學教育目標와 調和, 統合, 相補의 關係에 있다.¹⁵⁾

圖書館教育은 前述한 바와 같이 文化遺産(知的表現物)과 繼續的으로 複雜하게 增加해 가는 새로운 知識情報에 대한 効率的이고 體系的인 接近方法 및 活用方法의 教育, 即 自律的인 平生教育의 基礎教育이다.

以上과 같이 三者를 比較해 볼 때 教養教育은 民主市民的인 人格形成의 教育이며, 이러한 人格은 知的인 바탕위에 서는 것이며 專門教育을 위한 基礎教育的¹⁶⁾ 意味가 있는 것과 같이 圖書館教育은 學術研究와 應用方法을 다루는 教育이며, 새로운 教育方法으로서의 教養形成 및 學術研究의 基礎教育的의 意味가 있다.

知的 基盤없는 教養은 생각할 수 없으며 人格 即 教養의 바탕이 없는 學術은 單純한 知識에 不過하여 國家나 人類社會에 이바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大學教育에 있어서 專門教育과 教養教育이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처럼 圖書館教育은 大學教育의 目的인 學術의 研究와 教授, 그 應用方法이나 教養教育에 있어서 새

로운 方式의 基礎教育인 것이다. 即 圖書館教育은 學術研究의 必須條件이며, 教授方法上에 있어서 自律學習의 基礎가 될과 同時에 계속적인 自己改善의 教養을 쌓을 수 있는 基礎教育인 것이다. 要約해서 말하면 大學教育의 目的을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基礎教育이다. 即, 大學教育 全盤에 걸친 基礎이며 方法의 教育으로서 教養教育에 있어서의 基礎教育的의 意味가 크기 때문에 大學教養教育에 있어서 必須不可缺의 課程으로 教育되어야 한다.

Ⅲ. 實態調査에 나타난 圖書館教育의 現況과 效果

1. 實態調査의 目的과 方法

1) 調査의 目的

現在 各大學이 實施하는 各種 圖書館教育(新入生 오리엔테이션, 案內 冊子配付)의 實態와 效果를 測定하고 그 結果를 分析함으로써 改善點을 發見하여 大學生들의 바람직한 大學生活와 自律的인 學習을 위하여 圖書館을 能率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보다 效果的인 圖書館教育方案 即 圖書館教育을 教養課程化할 必要性에 대한 基礎資料를 얻고자 하였다.

2) 調査方法

本調査는 質問紙法을 使用하였다. 無順標準에 의하여 全國 12個 大學校 全學年 1,530名에게 質問紙를 配付하고, 全國大學圖書館의 責任者級 司書120名에게 質問紙를 配付했는데 71名이 應答해 주었다. 學生들의 學年·男女別 調査의 標準內容은 다음 表와 같다.

학년 및 남녀별 조사대상자

區分	學 年				性 別		總 計
	1	2	3	4	男	女	
實 施	385	275	560	310	959	571	1,530
回 數	301	212	477	297	838	449	1,287

3) 質問紙의 內容

學生用 質問紙는 現在 받고 있는 圖書館教育(오리엔테이션과 案內冊子)의 效果와 實態를 測定할 수 있는 問項 7, 圖書館利用實態를 알기 위한 問項 3, 圖書館에 관한 基礎知識을 評價하기 위한 問項 7, 새로운 圖書館教育의 必要性與否에 관한 問項 2로 都合19問項으로 構成하였다.

司書用 質問紙는 8問項으로서 學生用質問紙의 次要領域과 마지막 領域에 대하여 各各 4個 問項씩으로 構成하였다.

4) 質問紙의 處理法

註 14) 室伏武, “學校圖書館利用指導의 意義” 學校圖書館事典 東京, 第一法規, 1968 p. 241.

15) 中央教育研究所, 大學教育에 관한 綜合的 研究. p. 101.

16) 李英姬, “教養教育의 再檢討” 淑大學報 6 : 1966 p. 90 「...교양교육의 과제중에서 한가지는 자료수집, 조사연구법, 논문작성법을 가르쳐 줌으로서 전문교육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百分率로 計算하고 領域別 比較에서는 學年別, 性別 對比를 하였으나 本稿에서는 總計만 表示하고 紙面關係上 省略하였다.

2. 調査結果 分析

調査結果에 대한 分析 評價는 紙面關係上 省略하고 結論部分에서 引用 論及하기로 한다.

3. 要約結論

韓國大學의 圖書館教育은 全體 新入生오리엔테이션의 一環으로 實施되고 있으며 그 效果는 不充分하다. 案内冊子의 配付方法도 效果的이 되지 않는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學生이나 司書들도 圖書館教育을 正規科目으로 實施할 것을 希望하고 있으며 그 名稱은 「圖書館 및 文獻利用法」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時間 配當은 適當 1時間씩, 또는 2時間씩 配定해서 2期 또는 1學期間 實施하는 意見이 支配的이다. 紙面關係上 統計直의 引用을 省略하였다.

一言比蔽之하면 現在의 圖書館教育方法으로서는 所期の 目的을 期待하기 어려움으로 새로운 圖書館教育方法으로서 教養教育課程化 하여야겠다. 이 問題는 本稿의 主題임으로 다른 章에서 다시 論及하고자 한다.

IV. 大學教育改革의 胎動과 圖書館教育

1. 實驗大學의 意義와 圖書館教育의 必要性

1973年을 基點으로하여 韓國의 高等教育은 改革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뚜렷이 나타난 主題는 教養教育의 強化, 入試制度에서의 論文式出題, 系列別募集, 能力別卒業制度, 卒業論文制實施, 複數專攻認定, 專攻必須學點의 引下와 類似科目統合, 教授要目(Syllabus)의 公開, 課題學習 等이다. 이러한 새로운 用語들은 實驗大學이라는 表現으로 集約되며 實驗大學은 다음과 같이 以上の 表現들을 論理的으로 連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知識의 爆發의 增加라는 이른바 情報化時代에 있어서의 大學教育은 過去와 같은 注入式 暗記式的 受動的 講義方法으로서는 大學 本來의 目的은 勿論 急激하고도 多樣하게 變貌되어 가고 있는 社會에 對應하고 社會發展의 原動力이 되어야하는 大學의 使命을 다할 수 없다. 即 學問分野의 細分化에 따른 學問相互間的 關聯性 增大, 大學에서 다루어야할 知識內容의 量的 增加, 高等教育의 大衆化(知識의 普遍化), 複合社會化(產業社會化)에 副應하고 이러한 變化를 創造的 社會發展의 方向으로 誘導하고, 未來社會에 對備하기 위해서는 教授方法의 變化와 教育課程의 改編이 不可避하게 되었다.¹⁷⁾

따라서 複合社會化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複數專攻制, 適性選擇의 機會를 넓히는 系列別募集, 教養教育의 強化가 不可避하였고, 知識의 量的·增加는 教授要目的 公開에 의해 教育內容의 重複을 避하고, 學生들이 自發的으로 學習에 參與함으로써 增加된 教育의 內容을 制限된 時間에 깊고 넓게 理解시키고, 나아가서는 自律學習에 의한 創造的 能力(適應性)을 길러줌으로써 加速的으로 發展하는 學問과 社會에 適應하고 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能動的 人間을 養成하는 것이다. 이는 課題學習으로 表現되며, 그러한 機會를 넓히기 위하여 知識의 激增에도 不拘하고 專攻學點을 引下한 것이다.

論文式出題나 卒業論文制度도 이러한 能力을 키우는 것이며, 能力別卒業制度 또한 그러한 動機를 주자는 것으로 생각 된다. 特히 韓國과 같은 經濟水準下에서 教育年限의 增大는 期待하기 어려우며 經濟水準이 높아져도 이러한 理想은 教育에 反影되어야 한다.

即 새로운 教授方法으로서의 課題學習方法이 採擇되었으며, 教育課程의 改編으로서 複數專攻制, 專攻學點의 引下와 教科間的 重複을 막기위한 教授要目的 公開 等の 措置가 취해진 것이다.

以上이 實驗大學이 目標하는 內容이라면 課題學習으로 集約되는 教授方法의 必然的 改善은 圖書館教育의 뒷받침 없이는 所期の 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教育內容의 範圍를 오히려 縮少하는 結果를 招來할 것은 너무도 分明하다. 그것은 筆者의 實態調査에서 大學生들의 圖書館理解度가 說明하고 있다.

教授가 教科目 各章(Syllabus)의 概要, 目的, 學習方法, 問題意識을 講義하고 課題學習 結果의 分析評價에도 時間이 不足한 때에 學生들 스스로가 學習할 수 있는 自律學習의 基礎인 圖書館教育(文獻利用法·論文作成法等)이 實施되지 않으면 知識의 加速的인 增加에 의해 平生教育이 要請되는 現時點에서나 未來社會에 創造的으로 適應하고 能動的으로 開拓해 나가는 專門人의 바탕조차 키우지 못할 것이다. 端的인 例로서 卒業論文制 實施의 意義가 自律學習能力의 測定 및 獎勵의 方法으로서 採擇되었으나 論文作成의 先行條件이 되는 先行研究結果(文獻)의 調査方法(參考資料調査法——書誌의 利用法)을 모르고서는 效果的으로 論文을 作成할 수 없고 學術의 國際規格化¹⁸⁾나 國際化에 對應할 수 없는 것처럼 自律學習——課題學習의 基礎教育으로서 圖書館教育이 實驗大學에 實施되지 않으면 所期の 目標을 效果的으로 達成키 어렵다는 것은 너무

註 17) 淑明女子大學校, 高等教育改革을 위한 實驗大學 運營計劃. 서울, 同校, 1974 p. 1 및 中央大學校, 副專攻制實施의 現項과 問題點. 1975 p. 1 參照.

18)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學術論文作成 準則.

도 分明하며 이미 거의 圖書館人에 의하여 實驗大學以前에 圖書館教育의 必要性은 論及된지가 오래되었다.¹⁹⁾

2. 大學教育改革과 圖書館教育의 方向

前項에서 大學教育 改革의 不可避性과 그 方法으로서 實驗大學의 意義와 實驗大學에서의 圖書館教育의 必要性을 略述하였다. 또한 前章에서 圖書館教育의 內容을 밝힌 바 있다. 그 內容은 圖書館을 통한 教育이며, 圖書館의 利用方法의 教育이고, 圖書館資料는 知的表現物 全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視聽覺教育資料도 包含된다고 言及하였다. 그런데 지금 實施하고 있는 實驗大學은 自然系大學이 除外되고 있다. 오히려 實驗大學의 理想이 더욱 必要한 것은 自然系大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知識의 激增現象이 自然科學分野에 더욱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筆者가 알고 있는 實驗大學의 理想이 잘 못된 것이라면 몰라도 筆者의 見地에서는 主客이 轉倒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筆者는 實驗大學의 理想이 現在까지 發見된 大學教育 改革의 最善方案이라는 前題下에서 이에 對應하는 圖書館教育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하여 所信을 말하고자 한다. 이는 本論文이 말하는 圖書館教育의 領域을 分明히 하여 그 必要性을 더 나타내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로 圖書館 및 圖書에 대한 意義를 充分히 教育하여 學術研究와 生活現場에서 情報資料利用의 必要性을 알게 하는 것이며(理解의 領域), 둘째는 이러한 情報를 入受하는 効果的 方法의 教育(技術的 領域), 셋째는 얻어진 情報를 應用하는 教育(利用의 領域)이다.

理解의 領域에서는 文化發展과 情報資料와의 關係, 學問의 必要性, 尊嚴性, 文化暢達의 理想, 文化的 貢

獻의 崇高한 마음가짐을 文化資料의 愛護精神과 함께 教育해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써 圖書館의 目的과 機能을 스스로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技術的 領域에서는 圖書館機能別의 專門的 技術中에서 特別히 書誌, 書目的 利用方法에 置重하여 學習目的에 맞는 資料를 選擇하고 入受하는 技術을 가르침으로써 自律學習의 基礎를 튼튼히 하여야 하고,

利用의 領域에서는 論文作成法을 中心으로 하는 再創造의 能力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圖書館教育의 目的이 세번재의 領域에 있는만큼 첫째 둘째는 方法인 것이다. 이 再創造의 能力에 관한 教育은 圖書館人들만으로는 不可能한 領域이다. 이것은 課題學習을 통한 專門領域別 指導教授의 協調가 必要하다. 勿論 方法上의 教育, 體裁上의 教育은 不可能하며, 專門司書에 의하여 可能함으로 主題別 專門司書의 養成이나 教授에 대한 圖書館教育의 實施 等의 問題가 있다. 이러한 問題의 解決을 위해 教授養成의 大學院教育에도 圖書館教育을 必須科目으로 하는 方法도 생각할 문제이다.

以上과 같이 오늘날 大學에 있어서의 圖書館教育은 自律學習을 可能케 하는데 目的을 두고 實施되어야 하며, 그러므로써 文化暢達에 能動的으로 參與할수 있는 教養 높은 民主市民과 專門人을 養成한다는 大學教育의 目的을 能率의 率으로 達成할 수 있을 것이다.

3. 圖書館教育의 教育課程化의 意義

當局은 教育科目으로서 教練, 體育, 國民倫理, 國史 等を 法定化하였다. 이는 굳건한 體力과 國家觀을 定立시켜 民主市民的 資質을 教養化하자는 意圖가 있는 것으로 본다. 大學教育의 重要한 目標인 教養教育 即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여 國家社會에 貢獻할 수 있는 奉仕精神의 涵養이라는 觀點에서 이러한 目的科目을 法定教養科目으로 指定한 것은 充分하고도 남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前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教養教育은 專門教育을 위한 基礎教育의 意味도 있고 또 教養은 發展하는 知識과 變遷하는 社會에 대한 問題意識과 判斷力, 適應能力의 바탕이 있어야 하며, 大學教育의 또다른 重要한 目標인 專門教育 職業教育의 能率化를 위한 方法으로서의 教養教育을 위한 道具科目으로서의 法定教養科目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있다. 道具教科로서는 代表的인 것이 語學이며 語學教育의 重要한 目標은 文獻資料의 讀解에 있고, 이러한 道具的 方法의 教養教育은 圖書館教育으로서 要約될 수 있다.

大學에 圖書館의 設置를 法定化하고 있으면서 圖書館利用에 대하여는 아무런 對應策이 없고, 評價해 본 일도 없으며, 實驗大學以後에도 課題圖書室의 運營狀

註 19) — 1. 安永柱, 韓國에 있어서 大學圖書館奉仕의 效果에 관한 研究. 서울, 延世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65. pp. 92~94.

2. 1970年度 全國圖書館大會의 對 文教部 建議文.

3. 姜富弼, 韓國大學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에 관한 研究. 서울,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0 p. 170.

4. 한상완, “대학교육개혁과 대학도서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29, 9: 1972, 8 p. 26.

5. 淑明女子大學校 教育學會, “大學教育課程에 있어서 教養教育”(십포지음). 淑大新報 1972, 10, 9 p. 3

6. E.J. Josey, 矢野光雄譯, “The Role of the College Library Staff in Instruction in Use of the Library” 東京, 現代의圖書館 4, 1: 1966, 3 pp. 47~52.

7. A.R. Shiller, 堀内郁子譯. “Reference Service; instruction or information” Ibid. pp. 6—7.

8. 長澤雅男, 參考調查. 東京, 理想社, 1970, p. 87.

況에 대하여 論議된 바 없다.²⁰⁾

大學은 그 目的에 따라 教育計劃을 세우며, 그 計劃은 教育課程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大學教育의 發展은 곧 大學教育課程의 改善에 있다²¹⁾는 論理에서 筆者는 圖書館教育의 教育課程化를 主張하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理想이라 하여도 그것이 實踐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이라던 空想에 그치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大學教育改革이 目標하는 바가 成功하려면 圖書館教育의 必要性認識이나 그 밖에 어떠한 努力보다도 法定敎養課程化하는 것만큼 効力を 볼수 없기 때문이다.

V. 要約結論 및 提言

以上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知識報情의 爆發的 增加는 大學教育方法과 教育課程의 改善을 不可避하게 하였다.

筆者는 教育方法의 改善으로서 圖書館教育을 통한 自律學習, 課題學習方法이 加速的인 知識의 發展과 社會變化에 對應하는 最善의 方法이라는 것을 主張하고 圖書館教育은 지금까지 實施하는 傳統的 圖書館에 대

한 오리엔테이션의 方式이 아니고, 敎養課程化하여 教育할 것을 主張하기 위하여 大學教育의 目的과 敎養教育 敎養교육과 圖書館教育의 理論的 關聯性을 밝혔으며, 現行圖書館教育의 實態와 그 效果를 測定하였다.

더 나가서 大學教育改革의 背景과 圖書館教育의 必要性을 力說하였다. 그러나 必要性만을 強調하다 보니 重複되는 表現을 많이 했고, 實際 圖書館教育의 具體的 方法과 內容, 그 名稱에 대한 論及이 不足하였다.

實態調査에서 「圖書館 및 文獻利用法」이 가장 좋은 名稱으로 反應이 나타났으나 筆者 自身이 滿足하지 않고, 敎養課程化의 時間配當 問題에 있어서도 教育할 內容도 提示하지 않고 實驗의 結果없이 觀念의으로 나타났다고 보아진다. 이 점 大學圖書館界에서나 文敎部가 관심있게 연구할 課題인 것이다.

本(原)論文이 發表된 後에 多幸하게도 몇 몇 大學에서 圖書館教育을 正式으로 科目化하여 教育하고 있다.²²⁾ 이 점 特히 附記하고 싶다. 좋은 成果를 거두도록 圖書館教育의 內容과 方法에 관한 研究와 激勵가 甞 받춰되어야 하겠다.

註 20) 崔昌均, “大學圖書館의 回顧와 展望” 韓國圖書館協會 月報 14, 4: 1973, 12p.6

21) 鄭植永 外2, “大學教育課程에서의 敎養科目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12: 1968 p. 119.

註 22) 慶熙大學校가 最初로 實施하다가 담당敎授 사경으로 中斷되고, 現在 西江大學校와 東國大學校가 實施하고 있다.

各 圖書館 必携의 參考文獻

R. R.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MARCUS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AURT FRANKLIN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弊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을 拜受하고 있어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0번길 (72) 513-33